전호근 <장자, 그 신랄한 패러디의 세계>

10강 「대종사(大宗師)」- 으뜸가는 스승의 도에 대하여

1교시 도(道) 란 무엇인가

▲ <대종사>의 도(道)

오늘은 장자 내편 중에서 여섯 번째 편인 「대종사(大宗師)」편입니다. 대종사(大宗師), 종(宗)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종법(宗法)의 종(宗)이거든요. 뭐랄까요, 종가(宗家)의 종(宗)이기도 한데, 종중에는 대종이 있고, 소종이 있지요. 커다란 분파가 대종이고, 작은 분파가 소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종은 큰 줄기에서 갈래가 생긴 작은 줄기 이고, 대종은 모든 줄기를 포괄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가치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대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를테면, 나무의 뿌리에 해당하는 것이 대종이고, 또 줄기에 해당하는 것이 대종이고, 그 중에서 굵은 가지에 해당하는 것이 소종이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종이 아니라 작은 가지와 잎사귀가 되겠지요. 그 중에서 대종사(大宗師) 그러면 대종의 스승입니다. 곧 으뜸이 되는 스승, 최고의 가치, 장자가 이야기하는 당연히 대종사는 도(道)입니다.

도라고 하는 글자 자체가 수많은 함의를 가지고 있지요. 우선 길이라는 뜻이 있는 것 이구요, 당연히, 그리고 길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수단이니까 수단, 방법 등의 의미가 있고, 또 그런 수단과 방법을 말로 이야기 하는 것이니까 말씀 이런 의미도 되는 것 이구요. 그리고 말씀을 동작으로 나타내면 '말하다'라는 뜻이 되지요. 말하다,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목적지에 도달해 주고, 주는 것이 되니까,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목적 자체가 되기도 합니다. 목적 또는 목적지가 되기도 하는데, 이게 도(道)지요.** 그리고 그런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유용한 가치를 담고 있으니까, 목적을 추구하는 이유가 있듯이 그 목적에는 그 추구하는 사람의 만족감을 주는 무엇인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가치라고 하죠. 그런 가치를 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도입니다. 장자는 바로 이 도를, 으뜸가는 스승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이야기를 도로 포괄해서 이야기 하는데,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이야기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우리가 어떤 가치 있는 행동을 했다, 이러면 그 행동의 정당성을 입증해주는 다른 근거가 그 밑에 있겠지요. 근거가 있겠지요. 그런 근거가 하나 있다고 해서 행동이 정당화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근거와 상반되는 또 다른 근거가

www.artnstudy.com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또 다른 근거가 있죠. 이런 근거를 또 정당한 것으로 만들어 주는 또 다른 근거가 필요하고, 그 근거를 또 정당화 시키는 끊임없이 이어지겠지요.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나, 아니면 정이 먼저나 동이 먼저냐, 이런 식의 논쟁이 계속 되겠지요. **그런 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도입니다. 도이기도 하고, 또 이걸 장자 식으로 이야기 하면, 추(樞)라 고 하죠. 추, 지도리입니다. 지도리라고 하는 것은 문이 열고 닫히는 중심이기도 하고, 열었다 닫혔다 하는 것이죠.** 중심이 있는 것이죠. 수레바퀴로는 곡(轂)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수레바퀴의 곡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 테면 노자식으로 이야기하면 삼십폭공일곡(三十輻共一轂)이라고 하지요. 폭은 수레의 바퀴살을 의미합니다. 바퀴살이 서른 개다. 그 서른 개의 바퀴살이 일곡 수레바퀴를 그린다면, 바퀴살은 그런데 서른 개의 바퀴살이 다 가운데에 있는 빈 구멍으로 모인다. 그런데 이 빈 구멍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서른 개의 바퀴살이 효용성을 얻는 것이지요. 그런데 곡이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고, 본래 빈 구멍을 채워주는 쉬프트 에요. 이걸 곡이라고 하는데, 이 곡이 들어가는 구멍도 곡이라고 호칭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바퀴가 정중앙에 이 원의 정 중앙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제대로 굴러 갈 일이 없지요. 덜컹 덜컹 하다가 부서지겠지요. 그래서 옛 수레를 복원할 때에는 바퀴통을 따로 떼서 복원을 하지요. 늘 그 바퀴가 수레에 장착된 상태로 놓아두면, 이게 무게가 아래로 지속적으로 누르게 되면 이게 휘어지겠지요. 타원으로 휘어 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도에 쓰이지 못하게 되지요. 활 같은 것도 그래서 활을 걸어 놓을 때는 반대로 묶어서 걸어 놓습니다. 반대로 묶어서요. 반대로 묶어서 걸어 놓았다가. 나중에 쓸 일이 있으면, 풀어내요.

맹자에 보면 **궁치사장(弓雉斯張)**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 길을 떠날 때 활을 풀어낸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 길을 갈 때 활을 푼다. 그 때 푼다는 뜻은 벽에 거꾸로 묶어 놓았던 활을 푼다는 뜻입니다. 풀어서 다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제대로 묶어서 화살을 매서 쏘는 것이죠. 평소에 이렇게 해두면 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강한 힘을 가지지 못하게 되지요. 그러다가, 평소에는 거꾸로 이렇게 해서 묶어 두었다가 풀어냅니다. 어찌 되었던 이 중앙을 이제 지키고 있는 것이 추라고 하는 것인데, 이 추를 바로 '보'라는 명칭으로 많이 씁니다. 보를 얻었다 이렇게 하면, 중심을 얻었다 이렇게 되고, 그때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경우에는 사람들의 중심이고요, 모든 사람들을 공정하고 형평하게 대하는 그런 위치, 그런 정책, 그런 수단, 그런 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를 터득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잘 조정하고 사람들이 서로 친하게 하고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보다 해택을 더 받는다든지, 나만 더 따돌림을 당한 다든지, 나만 더 불리하다든지, 뭐 이런데서 나오는 것이지요. 똑같이 어렵다든지, 똑같이 잘 되는 경우에는 사람간의 분란은 일어나지 않지요. 분배가 잘 되면 그런 문제가 사라지지요.**

치(治)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유가에서 치라고 하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되었

www.artnstudy.com

던, 이런 의미의 도다. 장자는 이런 의미를 도추(道樞)라고 하기 때문에, 모든 가치에 우선되는 절대 가치가 바로 도추가 됩니다. 그게 고정 불변의 것이라면 아마 이런 것들을 움직이게 해 주지를 못할 겁니다. 근데 이런 수많은 도의 의미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것은 꼭 장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 막히면 어디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는 경우, 모르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신만이 알고 있다. 신 만 알고 있다. 이건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의 근거를 가져다 대지요. 신의 근거를, 참 어떻게 보면 곤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저는 무슨 온난화 현상이 왜 생기나, 이상 기상이 왜 생기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다 아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엘리뇨 현상 때문에 생긴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엘리뇨 현상이라는 것이 어떤 이유를 모르는 원인으로 인해서 적도 주변 해수면의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엘리뇨 현상이라고 해 놓으니까, 엘리뇨 현상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마치 어떤 이유인지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르는 현상을 개념화 시키거나, 특정 용어나, 또는 특정 신의 이름을 가져다 붙일 경우에 마치 그것을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지요. 호주에 가면 짐승이 있지요. 캥거루가 있지요. 그 캥거루가 명칭인데 그 캥거루가 원주민 말로 모른다는 뜻이라고 해요. 저게 뭐냐 하고 물으니까 캥거루 하고, 그럼 캥거루인가 보다 해서 그냥 이렇게 지었다는 식의 일들이 철학사에는 사실 비일 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를 테면,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명사화 시켜 놓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아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가끔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신에 대한 것도 비슷하지요. 신도 마찬가지고 다 여기에다 가져다 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전체적으로 자연을 이야기 할 때도 신의 섭리라고 그러고 왜 그래야 하는지 물어보면 그 끝에 가서는 궁극적으로 신이 나오고, 그럼 서양만 그러느냐, 서양이라고 해서 꼭 기독교 전통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 이렇게 대답하는 것 중에 하나이구요.

▲ 하늘의 뜻 - 자생자화의 논리

또 동양에서는 천(天) 같은 것이지요. 천, 한나라 때 동중서 같은 경우에 왕의 권한이 왕권(王權), 왕의 권한이 절대화 되는 시대인데 왕권이 절대화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똑같은 사람인데 왕이 특별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른바 진나라가 망할 때 진승과 오광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어떤 것이 이름이고 어떤 것이 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찌 되었던 간에 진성이 반란을 일으켰지요. 반란을 일으키고 왕후장상(王侯將相) 영유종자(寧有種子)라 이런 사람이 되는데, 영, 차라리 영자인데 어찌 영자이죠. 어찌 종자가 별도로 따로 있을 수 있겠는가? 곧 나도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이죠. 이건 이미 상식화 되어 있는데, 상식화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한 나라가 새로 들어 왔는데, 어쨌거나 한나

www.artnstudy.com

라 천자 황제는 절대화시켜야 하는 게 한나라 지식인의 임무였어요. 한나라 지식의 임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한나라의 왕권과 결탁한 지식인들의 임무였습니다. 왕의 권한을 절대화 시켜야 하는 데 거기서 나오는 것이 천이라는 개념입니다. **왕권 천수설**이죠. 왕의 권한은 하늘이 주었다. 하늘이 준 것을 보았느냐? 하늘은 보이는 말로 주는 것이 아니다. 여기다 그냥 가져다 붙이면 다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도지대원(道之大原)이 출어천(出於天)이다' 라는 것인데요. 춘추본로 하는 문언에 나옵니다. 도, 도는 아까 말씀 드렸던 그 여러 가지 방법, 수단, 말씀, '말하다'라는 동사 그리고 또 가치, 도의 가장 큰, 커다란 근원, 모든 가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출어천(出於天), 하늘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늘에서 나온다. 하늘이라고 하는 천이라는 존재를 제시하면서, 논쟁을 끝내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에는 권력과 결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권력이 결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신, 이렇게 이야기 하면서 **역시 논쟁을 종식 시키는 것도 결국 권력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간단하게 물을 수 있지요, 신은 누가 만들었느냐 간단하게 물을 수 있잖아요. 곤란해지죠. 거기서는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걸로, 자생자화(自生自化)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장자가 이야기하는 자생자화, 자기 원인에 의해서 생성되고 자기 원인에 의해서 변화한다.** 자기 원인에 의해서, 외부와의 교류와 접족 없이 스스로 표현하고 스스로 변화한다. 사실은 말도 안 되는 힘입니다.

변화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살아 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으로 변화는 것이 화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변의 종료이거든요. 끊임없는 교류를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제가 분필을 만졌다 그러면 분필이 제 몸으로 들어오고 제가 가지고 있는 손의 무엇인가 분필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만져도 그렇고, 주고받기 마련이거든요. 아무리 손을 깨끗이 씻어도 다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겁니다. 교류가 없을 수가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유리처럼 반반하게 되어 있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유리처럼 반반하게 되어 있어도 제 손 때나, 기름때나, 등등을 유리에게 뭔가를 주는 것이지요. 하물며 액체상태라면 더 말할 것도 없이 주고받습니다. 액체 상태, 물이다 이러는데, 사람은 물 없으면 살 수 없지만, 물을 너무 많이 받아들이면 빠져 죽지요. 익사 하는 것인데, 너무 많이 주고받으면요. 그런데 자생자화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물리적으로 일단 설명이 안 되는데 할말이 없으니깐 가는 거죠 사실은.

▲ 전해줄 수는 있지만 받을 수는 없는 도?

자기 원인에 의해서 생성되고 자기 원인에 의해서 변화 한다. 그러면 무를 끌어 드린 이유도 다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화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유에서 유로 가는 겁니다.** 물고기 새끼이건 뭐든 간에 다른 존재가 되는데 결국 유에서 유로 가는 것이지요. 뭐든 간에

www.artnstudy.com

밖에 있는 은행나무든 소나무든 간에 본래 소나무 아닌 것에서 바뀐 것이고, 은행나무 아닌 것에서 바뀐 것이죠. 변화라는 것은 이렇게 유의 시제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끝없이 변화의 근거를 찾아가다 보니까 결국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無)라고, 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직접 무를 경험 한다든가, 감각을 통해서 인지한다는 것은 불가능 한 것이지요. 실제로 무라는 것이 실체가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지요. 어찌되었든, 장자가 말하는 모든 궁극적인 가치, 그것을 대표하는 것은 도인데, 그와 비슷한 담론은 그런 이야기는 서구 사회에서는 신의, 서구 기독교 사회에서는 신으로 나타나고 **한대의 유가에 의해서는 도라는 말로 나타나고, 그 도라고 하는 것은 천이라고 하는 절대의 권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런 의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장자가 이야기 하는 대종의 도는 특이한 점이 바로 사람과 결부되어 있어요. 대종의 도를 터득한 사람. 결국 장자의 도는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도 있지만 외부로 전해주고 받을 수 있고 한거지요. 그런데 도는 전해줄 수는 있지만 받을 수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전이 불가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표현이 깊이 생각해 볼만한 그런 표현인데요. **이 도라는 것은 가전(可傳)이 불가수(不可受)라, 전해줄 수는 있지만, 받을 수는 없다.** 도를 전해줄 수는 있지만 불가수, 받을 수는 없다. 그 전해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하면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전해주기는 하는데 받을 수는 없다고 하니까 이게 갈등이 생기지요. 관둘 수도 없고 말이지요.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 하는가, 역시 본문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대종사」편 전체를 관통하는 이야기를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다 못 드렸네요.

▲ 유가의 치도

도지대원 출어천의 천과 서구의 기독교 문화에서 이야기하는 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유가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것입니다. 유가적 가치에서 도라고 하는 것은 좀 맥락이 조금 다르지요. 공자식으로 이야기 하면 조문도석사가의(朝聞道夕死可矣),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때의 도, 어떤 도냐? 사마천이 맹자를 보고 **도기통(道旣通)**이라고 했는데, 도를 이미 통했다. 도가 통했으면 되었지, 뭘 또 할 것이 있겠어요? 도통했으면 되었지, 뭐 더 할 것 있습니다. 도통하는 것이 목적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이야기 하는 것 '도를 아십니까?'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를 추구하는 것이죠. 도를 얻었으면 되었지 뭐 할 것이 있겠어요. 그런데 도를 얻어 가지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도 얻는 것 만 가지고, 이게 문도가 되던가, 도기통 한 다음에 공자가 한 것이 뭐냐면, 양나라고 가가지고, 제나라로 가가지고, 도기통 한 다음에 임금들 만나고 돌아 다녔다는 말이에요.

도기통의 도(道)는 뭐냐면, **세상은 어떻게 다스려야 할 것인가**, 그것이 도입니다. 이것은

www.artnstudy.com

치도 입니다. 그것이 지고의 가치입니다. 유가에서는, 그보다 높은 거 없습니다. 개인의 해탈, 생로병사 문제, 이것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고, 그저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를 이미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깨달았으니까 나가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실현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자들, 제왕들을 만나러 다닌 것이지요. 제나라 성왕을 만나고, 양나라 혜왕을 만나고 돌아다닌 겁니다. 공자가 죽어도 좋다 하는데 이것은 무슨 진리를 알면 죽어도 좋다고 했는데, 여러분 진리를 알았으면 되었지 죽기는 왜 죽어요. 왜 진리와 목숨과 바꾼다. 이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과학적 진리라고 어떤 양반이 주장하던데, 과학적 진리를 알았으면 무슨 노벨상도 받고 그럴 것이지 죽기는 왜 죽어요. 말이 안 됩니다. 개인적 가치를 이야기하기 보다는 거기에 목숨을 걸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하물며, 문도에요. 문도, 결국 도의 실현이거든요. 도 역시 결국 치도 입니다.

그러니까 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듣는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각성이 아니고, 결국 자기가 추구하는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 것인가 하는 그 이념이 실현된 그런 사회, 예를 들어 백범 김구가 나의 소원은 첫 번째 소원은 독립이고, 두 번째 소원은 그것도 독립이고, 세 번째 소원도 그것도 독립이다. 죽어도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백범 김구의 시대에는 그것이 진리라고 해야 되겠지요. 지금 뭐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은 좀 다른 맥락이 되니까, 지금 시대가 뭐 독립운동시대는 아니잖아요. 요즘 축구 할 때 마다 독립운동 하더라고요. 아주 좀 그렇더라고요. 일본하고 축구 할 때 마다 네티즌들이 독립운동해요. 중국하고 축구할 때마다 각자, 중국도 지금 식민지인지 전부 독립운동 해가지고 아주 그냥 읽기가 아주 힘들더라고요. 일본도 그렇더라고요. 어떤 점에서는 그런 점에서 스트레스 풀고, 다른 데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것은 저도 좋습니다. 그냥 민족주의고 국가주의고 이런 걸 축구할 때 다 풀어버리고, 실제로 우리가 경제적이나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이럴 때 이걸 내세우면 곤란하겠지요. 저는 그쪽 전공은 아닙니다만 그런 의미는 아니다 이겁니다.

이게 어찌되었던 이게 유가의 도이고, 유가는 이 치도의 근거에 수기가 들어가 있지요. 수기(修己), 제가 「대학」이야기 하면서 늘 말씀 드렸습니다만 자기의 수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 수양. 그리고 그 자기 수양을 이야기할 때, 그 말씀드린 것처럼 대본(大本)과 달도(達道)라 대본과 달도라는 말은 중용에 나오지요. 중용에 중야자는 천하지대본야(中也者天下之大本也)요, 중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에서 가장 중요한 근본이다. 중이라는 것은 마음의 중심 입니다. 마음, 뿌리이다, 근본이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 출발한다. 누구의 마음이냐, 제왕의 마음이에요. 제왕의 마음, 노임금의 마음이고, 순임금의 마음이고, 공자의 마음이고 맹자의 마음이고, 그냥 개인의 마음이 아니고, 그게, 잘 못 되면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잘 되면 달도가 됩니다. 달도에 달이라고 하면, 제가 달자 말씀 드렸지요. 이게 흙토로 되어 있는데 큰 대자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양양 자에요. 달도 쓸 때 그래서 밑에 양양 자를 써야 맞는 겁니다. 큰 양이 길에 서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인정한다. 그런

www.artnstudy.com

의미로 달자를 씁니다. 아름답다고 인정합니다. 몫이 크니까 많이 나누어 먹을 수 있잖아요. 아무리 커봤자 나누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그게 제대로 되면 달도가 됩니다. 그것을 이게 이제, 대본은 중인데, 제대로 되면 화가 되는 겁니다.

화야자는 천하지달도야(和也者 天下之達道也)라고 합니다. 화라고 하는 것이 말씀 드렸지요. 화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나무가 있고, 이렇게 되면 나무고, 이렇게 되면 이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면 이게 나무뿌리고, 나무 가지고, 이게 줄기고, 이렇게 되는데, 끝 말자가 되고, 이렇게 되면 뿌리 본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뿌리 본자를 쓸 때 보통 서예가들이 이렇게 쓰는데 이것은 틀린 겁니다. 뿌리 본자를 제대로 쓸려면 나무 목자에 써야지, 큰 대자에다가 사실은 정확한 건 아닌데, 고자에 이런 글자가 있으니까, 틀렸다고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어찌 되었든 생성, 다른 것 이구요. 그리고 이제, 이삭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표현하면, 벼입니다. 벼. 이렇게 그리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보리입니다. 잘 살펴보면 보리는 이렇게 대칭으로 되어 있고요. 벼는 한쪽으로 이삭이 기웁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소 우자에요. 쇠뿔을 이렇게, 쇠뿔을 강조해서 그린 것이죠. 이렇게 하면 이것은 양양 자 입니다. 양 뿔은 구부러져 있잖아요. 이 아가리가 아주 크다, 이것은 누가 봐도 짐승의 등이고, 다리고, 꼬리라는 것은 누가 봐도 다 알아요. 이것은 이제 호랑이에요. 범입니다. 입이 커요. 이것을 뒤집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범 아가리를 이렇게 표현한거에요. 돼지는 입 끝이 뭉툭하잖아요. 돼지 입이 뭉툭하잖아요. 돼지 입이 뭉툭한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 것을 세밀하게 관찰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화가들이 아마 그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사물을 아주 간결하고 명료하게 표현하면서, 할 말 다 하는, 이 사물의 모든 면을 다 그릴 수 없지요. 아무리 세밀 화가라도요 사물의 모든 면을 다 그릴 수 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물의 특징을 일부이긴 하지만 그것이 전체를 다 대표하는 것처럼 그 특징을 딱 포착해서 그리는 것, 그런 식으로 문자가 만들어 진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야기가 문자 이야기로 너무 나가버렸는데, 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삭이 있고, 그 이삭을 칼을 대고 따내면 이익이 되고, 이익이라고 할 때 '리'자가 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빼앗아 온다는 의미가 있어요. 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칼로 이렇게 빼앗아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안 좋은 겁니다. 빼앗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의미도 있고요. 이것이 아니라 여기에 입을 그려 놓으면, 벌린 입을 이렇게 그려 넣으면 화자가 되지요. 이것은 나누어 먹는 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나눠 먹는, 벼를 나눠 먹는 것이고 이것은 양을 나눠 먹는 것이거든요. 그걸 잘 나눠 먹는 것, 화라고 하는 가치는 달도다. 중은 임금의 마음이고, 그 임금의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 있는 것, 동요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 그것이 중이고, 화는 그 임금의 마음이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게 됩니다. 나누어 주게 되면, 달도가 되는 겁니다. 천하의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달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달도가 이루어지면 천하는 다스려 집니다.

www.artnstudy.com

그리고 이제 국도 화라고 하는 것이 간을 맞춘다는 뜻이 있지요. 간을 맞추다. 화라고 하는 것, 간을 맞춘다는 뜻이 있는데, 이 간을 맞출 때, 이 간 맞추는 것, 이게 화라고 하는데, 화갱(和羹)이라고 그러면, 갱은 국 '갱'자 입니다. 국에 간을 맞추는 것인데, 이른바 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국은 태묘에서 천신에게 제사지낼 때 천자가 제사를 지낼 때 그, 교제는 하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고, 교라고 하는 것은, 천제를 지내는 장소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원구단 혹은 환구단 뭐 이렇게 되고, 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은 사직단, 그렇지요? 그리고 종묘에서 태묘 같은데 제사를 지낼 때,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그때 국에 간을 맞추느냐, 태갱을 불합니다. 그런데 지내는 제사는 간을 맞추지 않아요. 간을 맞추지 않는데, 그게 모든 사람에 간에 맞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의 입맛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고루 간을 맞춘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이야기를 좀 곁다리로 좀 나갔는데요. 어찌 되었든, 유가가 지향하는 가치, 조문도이면 석사가라, 도기통의도, 그리고 중야자 천야지대본야(中也者 天下之大本也)할 때의 대본(大本), 화야자 천하지달도(和也者 天下之達道也)라고 할 때 이 달도(達道), 이런 것들은 모두 치도를 의미하고, 결국 분배구조의 개선을 통한 인간과 인간, 개인과 사회 구성원간의 화목함을 이끌어 내는 것, 그 사회 통합을 이끌어 내는 그 가치가 유가의 도라고 할 수 있지요. 그보다 더 앞서는 가치는 없다. 그러니까 유가가 자고로 그런 걸 비판하지요. 유가가, 이를테면, 주자학자들이 불교를 비판하면서, 송의 성리학을, 기존 유학을 재해석해 내는데 그때도 같은 논리 입니다. 조문도면 석사가이라는 것이, 개인의 깨달음이나 해탈이라고 한다면 불교식 깨달음이나 이런 것하고 같다고 할 수 있겠지요. 불교식의 깨달음이 다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니구요. 그 당시 유가가 비판했던 그런 의미의 불교적 가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불교도 워낙 다양하고, 지금 그렇다고, 지금 비판받지 않을 무슨 어떤 이념이나 종교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지금 비판을 한다면 또 다른 맥락의 비판이 있어야 하겠지요. 어쨌든,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장자가 이야기하는 대종의 가치, 대종의 스승이 뭔지는 정리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

2교시 대종사에 대하여

▲ 대종사란 무엇인가

www.artnstudy.com

우선 1페이지 보시죠. 대종사란 무엇인가? 이게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대종사(大宗師)란, 대종사는 대종(大宗)의 스승, 곧 **모든 가르침의 으뜸이 되는 도(道)**를 말한다. 일단 도가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제 최선(最先)이라는 주석가가 한 말을 한번 보죠. "형체를 버리고 삶을 잊어버리니, 몸뚱이를 장식하고 몸뚱이를 바꿔볼까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소망인데, 그것을 버리고 삶을 잊어버리니,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그것을 버리니, 그러니 마땅히 이 법을 크게 높여야 한다. 대종차법, 형체를 버리고 삶을 잊어버리는 방법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한다." 형체나 삶을 넘어서는 가치를 이렇게 이야기 했다. 이렇게 보았고요.

그러면 곽상(郭象)을 보죠. "비록 천지가 크고 만물이 풍부하지만 그들이 높여서 스승으로 삼아야 할 것은 무심(無心)이다. (雖天地之大 萬物之富 其所宗而師者 無心也)." 곽상 스타일의 해석 입니다. 임히일(林希逸)은 "大宗師는 道이니 '성인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 받는다' 이것은 뭐 노자에 나온 말을 원용해서 풀이를 했고요.

그리고 현대 학자 중에, 한편 왕순민(王叔岷)은 하고 나오지요. 왕순민은 굉장한 학자 입니다. 대만의 국립중앙연구원, 뭐 아무튼 용어가 좀 복잡한데 거기에서 연구하는 학자 입니다. 거기는 대부분 종신제라서 죽을 때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합니다. 아무가, 누가 알아주든 말든,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좋지요. 다 종신제로 하면 좋을 것 아니냐, 그렇지 않지요. 종신제로 하면 그런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그렇다고 다 없애 버리면 저런 사람도 안나오는 것이지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종신제로 했을 때 폐단도 있고, 또 장점도 있는데, 그때그때 따라서 보아야 하겠지요. 종신제로 했을 때 폐단이 생기면 종신제를 줄여야 할 것이고, 하나도 없어서 저런 학자들이 안나오면 만들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봐야죠. 어찌되었던 왕순민이 이야기 하는 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이 편은 깊이는 있지만 순후(淳厚)하지 못해서, 깊이가 있다는 이야기는 생각의 깊이를 이야기 하는데, 순후하지 못하다고 했지요. 이야기의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장자답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 할 수 있겠고요. 신선사상이나 심지어 법가사상까지 뒤섞여 있기 때문에, 장자가 법가에 반대하는데 또 신선 사상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장자 입니다. 신선 사상과 유사한 측면은 있지만요. 장자의 초기작품이거나 장자를 배우는 무리들이 어지럽힌 바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라고 말 했고요. 일본의 학자 이께다(池田知久) 또한 이 편을 장자의 초기작품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참고할 만한 내용이구요.

모두 8장으로 구성된 이 편에서 장자는 무려 40여명에 달하는 가공 또는 역사상의 인물의 등장시키고 있는데, 역사상의 인물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융화이기 때문에요. 사실, 창작한 인물이라고 봐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도를 체득한 인물들이거나 도의 현신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높은 경지에 도달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득도자의 행렬이

www.artnstudy.com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득도자의 행렬이라고 할 만큼 다양한 인물군이 나타나는** 이 편에서 유가의 성인인 요(堯)임금 정도의 인물은 어리석은 인간들을 구속하는 형벌의 시행자에 지나지 않고, 공자나 자공은 방내(方內)의 좁은 세계, 방(方)은 법 방자 입니다. 세속적인 가치, 곧 예교, 법률의 선내에서 움직이는 좁은 세계, 곧 부자유한 세계에 구속당하는 하급의 인물일 뿐이며, 심지어 제물론(齊物論)의 득도자였던 남백자규(南伯子葵)또는 남백자기(南伯子綦), 같은 인물이라고 했지요. 다 같은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도 기껏 도를 배우려고 질문하는 학생에 지나지 않는다.

▲ 대종사 본문 탐구 - 진인, 도의 전수, 좌망

본문 속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기로 하는데, 일단 정리는 한번 해보지요. 제1장에서는 도(道)를 체득한 **진인(眞人)에 대한 장황한 묘사, 참된 사람이 뭔가, 도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호흡하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진인은 호흡이 발바닥 끝까지 도달하는데 보통 사람은 목에서 왔다 갔다 한다. 또 진인의 호흡은 길고, 보통사람의 호흡은 목에서 왔다 갔다 한다. 짧다. 쉼 호흡이 좋다 뭐 그렇다고 오래살고 하는 것은 아닌데요, 거기에서 집착하는 부류들도 있습니다. 이 진인에 대해서 묘사를 하면, 강이나 호수가 다 얼어버릴 정도로 다 타버릴 정도로, 뜨거워도 진인은 불에 타지 않고, 뜨거워하지 않고, 또 하한, 황하나 한수까지 다 얼어버릴 정도로 날씨가 추워도 진인은 추위를 타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을 실제 그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연단 쪽으로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외부의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흔들지 못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할 텐데, 실제로 도력을 가지고 불타지 않고 죽지 않는 존재로 묘사 된다 그러면 사실은 장자가 이야기 하는 것과 서로 모순 되거든요. 어찌되었든, 진인에 대한 장황한 묘사가 나올 텐데요 한번 보시도록 하시도록 하고요. 시위시(猶韋氏), 복희(伏戲), 유두(維斗), 일월(日月), 감배(堪坏), 풍이(馮夷), 견오(肩吾), 황제(黃帝), 전욱(顓頊), 우강(禺强), 서왕모(西王母), 팽조(彭祖), 부설(傅說) 등 열선전을 방불케 하는 수많은 인물이 등장한다. 열선전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여기서 장자는 "샘이 마르면 물고기들이 땅위에 남아서 서로 습기를 뿜어내며 서로 거품으로 적셔 주지만 강호(江湖)에서 서로를 잊고 사느니만 못하다(泉涸 魚相與處於陸 相呴以濕 相濡以沫 不如相忘於江湖)." 이렇게 말하면서, **득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어지러운 세상에서 인간들이 서로를 위해 감싸주는 행위는 부자유의 굴레를 피할 수 없는 하찮은 몸부림에 지나지 않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그게 정말 하찮은 것이고 가치가 없는 것이냐, 그것은 또 다른 맥락이지요. 어찌되었든 그런 것들이 강호에서 서로를 잊고 사는 것만 못하다는 것하고는 다른 스케

www.artnstudy.com

일의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흔히 어떤 개인의 위대함을 이야기 할 때, 퇴계 이황의 위대함을 이야기할 때 신분이 낮은 사람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말 따뜻함을 위해서라면 신분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 근대적인 맥락 아니겠어요. 종으로 놔두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대우가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퇴계 이황 같은 조선시대 인물에게 혁명가가 되기를 바라는 것도 우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이야기 하는 스케일은 샘이 말라 버렸을 때 물고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보듬어 주고 하는 것을, 서로 잊고 지내는 것만도 못하다는 그런 이야기의 스케일이 인정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고기들이 서로 이렇게 뿜어 주는 것을 하찮은 것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아직 기다려봐야 할 여지가 많습니다. 한 가지 측면을 일단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2장을 보시지요. 제2장 남백자규와 여우의 대화 속에서 도는 한편으로는 배울 수 없는 것으로 묘사되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해줄 수는 있지만, 받을 수는 없다.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터득하는 방법밖에 없다. 터득은 **스스로 터득 하는 것**이지요. 전해주기는 하지요. 그런데 결국은 전해주지 못하면 터득하기는 힘든 것만은 사실인데, 전해준다고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이제, 이것이죠. 전해주는 것은 전해갑니다. 전해지고 또 전해지고 또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요임금은 순임금에게 전해주고, 순은 누구에게 전해주었느냐, 우임금에게 전해주고, 또 우는 누구한테, 그 다음 왕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탕임금, 탕은 누구한테, 문왕, 무왕, 주공, 이건 누구한테, 공자한테, 아니 어떻게 우임금이 탕임금에게 주어요? 그 기록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한 사오백년 차이가 난다는 말이에요. 전해줄 수가 없지요. **직접은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해지는 것이지요. 이렇게, 그러다가 한 명이 터득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전해지고 하다가 무가 터득했고, 주공이 터득했고, 주공이 공자에게 직접줄수는 없지만 공자를 지나 맹자가 터득했다,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처음으로 이야기 한 것이 맹자입니다. 맹자가 뭐라고 하냐하면, 맹자에 이르기까지 500여년이 흘렀다. 그리고 견이 지지자도 있고, 요임금, 순임금의 도를 견이지지자(見而知之者), 보고 아는 사람, 우나 고요, 견이 지지자 식으로, 만약 이를테면, 우임금이나 고요같은 사람들은 요임금의 덕을 직접 보고 알았고, 문이지지자도 있다. 문이지지자(聞而知之者), 이 문이 전입니다. 전, 도라는 것은 이런, 이런것이라더라, 이런 것이라 더라 전해지는 것, 전문 입니다. 이렇게 전문은 계속 되는 것이에요. 터득하는 사람은 너무나 적지요. 그러다 터득한 사람이 문왕이니, 공자니, 맹자니, 이렇게 나오고 맹자 이후에 딱 끊어 졌다 1400년 있다가 터득한 사람이 없었다고 봐요. 주자학자들은, 여기까지는 맹자가 이야기 했고, 받아서 이야기 한유가, 맹자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직접 호칭하는 것이 결례가 아닙니다. 사실은, 정약용, 이황, 이렇게 소크라테스, 데카르트, 이렇게 바로 부르는 것이 사실은 최고의 존칭인데 그것을 자꾸 피하지요. 그 사람의 이름만으로 그 사람

www.artnstudy.com

의 존재가 들어 나는 것이 가장 명예로운 것인데, 피하고 선생님 붙이고 이러는데, 그게 오히려 좀 이상한 것이요. 가지 사이에 맹가가 죽고 난 다음에, 부덕기 전은이라, 전수 받을 사람이 없게 되었다. 끊어 졌다가, 다시 1400년 지난 뒤에 정이천이 받았다. 정호가 받았다. 이것이 정이천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주자가 받았고, 우리나라에서는 율곡이 받았고, 퇴계가 받았고, 사계가 받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누가 누가 받고, 갈라서고 뭐 이런식이지요. 그럴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고전을 이렇게 전해지지만, 그 고전의 가치를 모든 사람이 다 알 수는 없겠지요. 그 중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내가 3000년 전에, 2000년 전에 문언을 읽어도 그로부터 터득한 것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뭐 어찌되었든 한편으로는 배울 수 없는 것으로 묘사되면서도, 이런 단계를 이야기 합니다.

외천하(外天下), 천하를 도외시 하는 것. 외물(外物), 만물을 도외시 하는것. 외생(外生), 생명을 도외시 하는 것, 천하라는 가치가 엄청나게 중요하지요. 천하, 국가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 만물, 천하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천지 사이의 온갖 존재를 만물이라고 하지요. 모든 존재, 외생하면 그 존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라고 하지요. 보통 우리가 관념론이 도피해서 숨는 것처럼 생명을 이야기 하는데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조철(朝徹), 조철은 아침에 사람이 이렇게 깨어난, 아침처럼 환하다, 밝다. 이런 뜻입니다. 환한 아침처럼 깨닫는 것이에요. 환한 아침, 아침의 밝은 햇살을 어느 순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그런, 그냥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라, 그런 것처럼 깨우치는 겁니다. 견독(見獨) 이러면, 독은 홀로 서있는 존재, 독입니다. 홀로 모든 것을 다 도외시했기 때문에 천하, 만물, 생명 다 도외시했기 때문에 홀로 서있는 돌을 보는 겁니다. **무고금(無古今), 시간의 흐름을 망각해 버리고, 입어불사불생(入於不死不生),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는 단계에 들어가는 도의 단계별 수행과정을 말함으로써 수행을 통해 도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특히 도의 전수과정을 부묵(副墨)의 아들, 부묵이라고 할 때 묵은 글씨를 쓰는 도구, 먹이에요. 문자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부묵이 먹이기 때문에 먹이 지나간 곳에 남는 것이 글자 아닙니까, 부묵의 아들, 낙송(洛誦)의 손자라고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락송의 락은 연락할 때 락입니다. 줄줄 외우는 것입니다. 문자의 전통이 있고 말의 전통이 있는데, 당연히 말의 전통이 더 오래 되었지요. 문자가 말보다 앞설 수가 없지요. 더 근원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첨명(瞻明), 볼 첨자 밝을 명자. 직접 도를 본거지요. 섭허(聶許), 도를 바로 알아듣는 사람, 도를 바로 알아보기만 해도 바로 도인지 아는 사람, 그런 차이가 있지요.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이 더 빠른 사람이 있지요. 정보가 많아서 일수도 있고, 통찰이 더 빨랐을 수도 있지요. 수역(需役), 도를 기르는 사람. 그리고 오구(於謳), 도를 즐기는 사람. 오구, '오'로 읽습니다. 현명(玄冥), 깊고 어두워 알 수 없는 사람. 현도 그렇고 명도 그렇고 다 어둡다는 뜻이거든요. 참요(參寥), 텅 비어 있는, 고요한 도에 참여하는 사람. 의시(疑始), **시작을 알 수 없는 경지에 도달한 사람,** 시작이 언제 인지를

www.artnstudy.com

의심하는, 시작을 알 수 없는 경지에 도달한 사람, 이런 식으로 역순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문자라고 하는 것이 도중에서 가장 천박한 것이라고 말 할 수 있지요. 그것보다 좀 더 나은 것이 말이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보고 아는 것이고, 무언지 알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역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장에서 제8장에 이르기까지는 자사(子祀), 자여(子輿), 자리(子犁), 자래(子來), 자상호(子桑戶), 맹자반(孟子反), 자금장(子琴張) 등으로 대표되는 방외(方外)의 인물, 세속적 가치 규범의 바깥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구요. 바깥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면, 세속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세속적인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 세속의 기준에 맞출 수 밖에 없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고, 자공과 공자로 대표되는 방내의 인물이 쭉 나오고요. 제 7장에서는 안회와 공자의 대화를 통해 좌망(坐忘), 일체의 지식을 다 잊어버리는 상태, 앉아서, 잊어버리는 상태에 대해서 대해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도에 이르는 단계별 수행과정, 대종사 전체를 총괄하여 설명한 시간을 가져 보았구요. 잠시 쉬었다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3교시 삶과 죽음을 대하는 방식과 참된 가치

▲ 진인 - 희노애락, 즉 욕망이 없는 상태

대종사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페이지 하단에 보면 첫 번째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게 바로 주제는 참다운 사람은 누구인가. 이게 주제 입니다. 진인(眞人)이지요. 참 진(眞)자 사람 인(人)자, 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간단하게 표시한 부분이 있는데, 그 대목도 굉장히 긴데요. 제가 일부를 뽑았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무엇을 일러 진인(眞人)이라 하는가.

옛날의 진인은 적다고 해서 거절하지 않으며, 공(功)을 이루어도 뽐내지 아니하며, 인위적으로 일을 도모하지 않았다. 그 같은 사람은 실패(失敗)하여도 후회하지 아니하며, 일이 합당하게 이루어져도 우쭐거리지 않는다. 그 같은 사람은 높은 데 올라가도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물 속에 들어가도 젖지 아니하며, 불 속에 들어가도 뜨겁지 아니하니, 이것은 지식이 도(道)의 경지에 오름이 이와 같은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물속에 들어가도 젖지 아니하고, 불속에 들어가도 뜨겁지 않다. 이것을 수사로 이해하지 않고, 실제로 그렇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연단술을 만들어 내지요. 실제로 신체를 그렇게 단련을 해서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www.artnstudy.com

글쎄요. 뭐 계속 보지요. 옛날의 진인은 잠잘 때에는 꿈을 꾸지 않았고, 깨어 있을 때에는 근심이 없었으며, 꿈이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본 것이지요. 근심이 없고 깨끗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깨어 있을 때에는 근심이 없었고, 먹을 때에는 달게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단것을, 맛있는 걸 많이 먹지 않았다. 숨은 길고 길었다. 진인의 숨은 발뒤꿈치까지 미치는데, 보통 사람의 숨은 목구멍까지 미칠 뿐이다. 어쨌든 거기에 보면 원문 진인지식(眞人之息)은 이종(以踵), 종(踵)은 발뒤꿈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중인지식(衆人之息)은 이후(以喉)니라, 보통사람의 숨은 목에서 왔다 갔다 한다, 짧다. 이런 말이고요. 긴 숨을 좋은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진인입니다.

결국 적다고, 많다고, 성공했다고, 실패했다고, 물이라고, 불이라고, 걱정 근심, 희노애락, 이런 것이 없는 상태, 이걸 이제 진인의 상태라고 하고, 잘 때는 꿈꾸지 않고, 깨어서 근심이 없고, 뭐 단 것을 먹지 않고, 숨을 길게 쉬는 이것이 진인인데, 그와 반대인 사람이 이제 그 다음 문단에 나옵니다. 남에게 굴복(屈服)하는 사람은, 굴복을 왜 하겠어요. 그 사람에게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지요. 목 메인 듯 아첨하는 말소리가 마치 토하는 것 같고, 욕망이 깊은 사람은 자연의 기틀이 얕다. 이게, 부정적으로 묘사가 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진인 입니다. 옛날의 진인(眞人)은 생(生)을 기뻐할 줄 모르고 죽음을 싫어할 줄도 몰라서, 태어남을 기뻐하지도 아니하며 죽음을 거부하지도 아니하여, 태어남을 기뻐하면 죽음을 거부 할 텐데, 죽음을 거부하지 않을 수 있는 전제가 태어남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홀가분하게 세상을 떠나며, 홀가분하게 세상에 태어날 뿐이다. **자신의 생이 시작된 곳을 잊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끝나는 곳을 알려고 하지 않아서, 생명을 받아서는 그대로 기뻐하고, 생명을 잃게 되어서는 대자연으로 돌아간다. 시종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살면서는 자연스럽게 이것을 받아들이는 수가 있는데, 우리삶이 시작되었다가 끝나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것을 그대로 옮겨 놓으면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즈나 마르셀 프로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가 되는 것인데, 그대로 묘사해 놓으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 되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을 일상 그대로 보면, 영화 보는 것처럼 볼 수 없을 겁니다. 너무나 지루하고, 너무나 비창조적이고 그럴 것이에요. 그대로 보면, 소설로 치면 제가 생각나는 게 율리시스나 제임스 조이스의 피네간의 경야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스토리가 있고, 절정이 있고 그렇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사는 것을 그대로 쭉 기록을 해 놓으니까, 세상이 그렇게 생경하게 보일 수가 없죠. 영화 중에도 또 그런 영화들 있죠, 홍상수 감독의 영화들이 그렇잖아요. 그냥, 이걸 꼭 영화라고 봐야하는 싶을 정도로 당혹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높이 평가받고요. ‘디워’처럼 막 이런 게 아니고, 이게 그냥 이 그냥 일상의 그 모습을 그대로 막 보여주니까 굉장히 어떤 경우에는 황당하고 그렇지요. 삶은 그런데, 실제로 그런데 작품화 되었을 때는 굉장히 어렵게 보이지요. 우리 삶이 그렇게, 진인도 그런 겁니다.

www.artnstudy.com

시작된 곳을 잊지 않지만 끝나는 곳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시종이 있고, 어떤 기승전결 형식을 가지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실제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 까지, 일관된 어떤 삶의 목표나 지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위인전 아닙니까? 그것이 만들어진 위인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진인은 이런 사람들이고요. 내용을 보면 이것을 일컬어 '끝나는 곳을 알려고 하지 않아서, 생명을 받아서는 그대로 기뻐하고, 생명을 잃게 되어서는 대자연으로 돌아간다. 이것을 일컬어 심지(心知)로 도(道)를 손상시키지 아니하고, 인위적인 행위로 무리하게 자연의 운행을 조장(助長)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런 사람을 일러 진인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보면 약호불해(若狐不偕), 무광(務光), 백이(伯夷), 숙제(叔齊), 기자(箕子), 서여(胥餘), 기타(紀他), 신도적(申徒狄)과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할 일을 대신 처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꼭 맞는 것을 자기에게 꼭 맞는 것으로 여겨 스스로 자기에게 꼭 맞는 것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걸 원문으로 한번 보지요. 원문에 보면, 약호불해(若狐不偕), 무광(務光), 백이(伯夷), 숙제(叔齊), 기자(箕子), 서여(胥餘), 기타(紀他), 신도적(申徒狄)과 같은 사람은, 시역인지역(是役人之役), 인지역(人之役)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역, 자기가 하는 거 에요. 그리고 적인지적(適人之適)이라, 적은 꼭 맞추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장자가 꿈에 나비가 되잖아요. 나비가 되었는데, 적지, 뜻에 꼭 맞았다고 했지요. 후연 '호접야'라 해서 전혀 어색하지 않고 자기 뜻에 꼭 맞았다는 것이에요. 전혀 자기가 장자라고 의식하지 못하고, 나비라고 의식했다는 것이지요.

▲호불해, 무광, 백이, 숙제 - 다른 사람에게 맞는 것을 자신에게 맞는 것으로 여기다

그런데, 후불해나 무광, 백이, 숙제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적인지적(適人之適) 그리고 마지막에 부자적기적자(不自適其適者), 자기에게 꼭 맞는 것을 스스로 꼭 맞추지 못했던 사람들이다.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엉뚱한 일을 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길래 그랬느냐, 이 맨 처음에 호불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호불해라는 사람은 요임금이 천하를 다스리다가 이 호불해를 찾아와서 천하를 물려주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수에 빠져 죽습니다. 하수(河水), 왜 빠져 죽느냐 말이에요. 이게 오버라는 것이지요. 장자가 볼 때 이건 오버라는 거 에요. 무광, 무광은 누구냐면, 탕 임금이, 무광에 대해서 황제 때 사람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탕 임금 때 사람으로 보는 게 좀 더 많은데요. 탕 임금이 무광을 찾아 와가지고 천하를 당신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무광이 더러운 말을 들었다고 해서 결국 빠져 죽는데, 앞에 호불해가 먼저 빠져 죽었기 때문에, 그냥 빠져 죽지 않고, 돌을 짊

www.artnstudy.com

어지고 빠져 죽어요. 나 절대 안나온다. 돌을 짊어지고 빠져 죽습니다. 나 절대 안나온다. 오버라는 것이죠. 백이와 숙제, 말할 것도 없이 주나라 땅을 밟기 싫다고 해서 수양산에 가서 고사리를 채 먹다가 굶어 죽었지요. 이것도 오버라는 것이지요. 뭐 그렇게 까지 할 것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자, 기자는 이제 은나라 주 왕의 숙부였지요. 거짓으로 미친 체 했고요. 서여는 기자의 뭡니까, 자, 이름이다, 이런 주장도 있고, 또 모자서의 이름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조금 불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뭐 비슷한 행동을 한 사람이구요. 기타는 좀 더 심한 경우에요. 이 기타는 앞에 나온 무광과 동시대의 사람으로서 무광 이웃에 살고 있었는데, 탕 임금이 무광을 찾아가서 제 나라를 맡아 달라고 하니까 무광이 돌을 짊어지고 빠져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무광이 빠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타는 탕 임금이 나를 찾아오겠구나. 해가지고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빠져 죽습니다. 세상에, 이런 오버가 있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제 누구입니까? 신도적이 나오는데, 신도적도 마찬가지 입니다. 신도적도, 그러니까 무광이 살고 그 옆에 기타가 살고 그 옆에 신도적이 살았던가 봐요. 역시 이번에 자기 차례다 하고 빠져 죽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청렴결백함으로 세상에 이름이 알려져 있지만, 스스로 원해서 빠져 죽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뭐 쉽게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굴원도 물에 빠져 죽었지요. 나라가 망하는 것을 그냥 바라볼 수 없어서 빠져 죽었지요. 연못에 빠져 죽었지요. 그런데, 이제 그런 행위를 장자가 보기에 그거 다 남의 기준에 맞춘 것, 자신의 기준에 맞춘 것이 아니고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자신을 버려서 까지 이루어야 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할 때, 그 가치가 정말 자신을 버릴 만한 것인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일단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를 넘어서는 또 다른 가치를 위해서 자기를 바친다**. 이런 문제 인데, 우리가 흔히 멋있는 말로 이야기 하는 것이, 사위지기자사(士爲知己者死),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 남이 나를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고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지요.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는 남이 나를 알아주든 말든 상관없어. 나 잘 나면 되었지, 결국 이게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표현이지요. 알아주었으면 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다른 표현이지, 나는 상관없다. 이건 사실 불가능하지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한 것이. 얼마나 그게 예민한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떠들고 있는 어지러운 공간 속에서도,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를 두고 하는 말은 속속 들어와요. 사람 한 100명이 모여서 정신없이 술자리에서 떠드는데, 전호근이 어쩌고 하는 소리는 귀에 속속 들어와요. 그냥 이렇게 간다는 말이에요. 거의 그냥, 생존을 좌우하는 그런 안테나가 서 있는 것이지요. 그로부터 자유롭다는 하는 이야기는 정말 힘든 일인데, 그게 이제 지나친 나머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사, 목숨을 바친다. 이렇게 되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멋있는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게 사실 예향이라는 사람의 고사에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사실

www.artnstudy.com

뒤에 이야기가 너무 긴데, 예향이라는 사람이 지백. 원래 진나라 진 문공의 진나라에서 가장 세력이 강했던 지시, 지백이고, 그 다음에 한시, 위시, 조시가 있어요. 다 나중에 제후로 독립하지요. 지백이 제일 먼저 멸망시킨 게 중앙시가 진나라 문공, 진나라 제후 밑에 있는 대부들인데, 지백이 중앙씨 멸망시키고, 조씨를 공격해요. 조씨 멸망시킬려고, 조씨의 가신이었던 장명란이라는 사람이, 한씨와 위씨를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망하면 다음은 당신들 차례다, 우리 합쳐서 싸우자, 그렇게 해서 지씨를 멸망시키자, 지백을 위해서 복수를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게 예향이에요. 예향이 조씨를 죽이려고 쫓아 다녀요. 어느정도를 하냐면, 탄탄위야, 석탄을 삼겨서 벙어리가 되고, 벙어리가 되어서 노예가 되 가지고 측간에, 화장실 도색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어요.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이 조씨가 왔을때, 조적이라는 인물이거든요. 이 조적이 왔을 때 죽이려고 숨어 있다가 발각이 되어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너 왜그러냐 하고 물어보니, 주인을 위해 복수를 한 것이라고 하니까 살려줍니다. 원래 한번 정도 살려줘야 해요. 자기 주군을 위해서 복수하는 사람을 바로 죽이면 자기 부하들이 자기 말 듣겠어요? 아, 가상하다. 칭찬할 만 하다. 하고 살려 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계속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해요. 나중에는 저 다리 밑에 숨어 있다가, 조적이 다리를 지나갈 때 죽이려고 하다가 붙잡힙니다. 그래서 결국 조씨가 예향을 죽일 수밖에 없는데, 조씨가 따집니다. 네가 그전에 섬기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 전까지는 다른 주인들 죽었을 때는 복수를 안 하다가 왜 지백이 죽었을 때는 복수를 하냐 물었더니, 예향이 지백은 나를 국사로 대우해 주었다. 따라서 사위지위자사라고 선비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바친다, 라고 말을 했지요. 결국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죽이고 맙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멋있는 이야기로 기억이 되어 있는데, 어째 좀 생각이 보아야할 문제가 많지요.

목숨을 바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저런 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만큼, 우리가 이제 충성을 이야기 할 때 어떤 사람에 대한, 개인에 대한 충성을 이야기 할 때 저런 가치를 높이곤 하는데, 장자가 보기에 그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 사는 건 좋지만, 누구를 위해 죽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좀 예를 들면 어떤 조직에 대한 충성을 이야기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곤 하죠. 그러다 보니 조직이 부패했는데도 충성을 다하지요. 목숨을 걸고. 어떻게 보면 조직의 부패했을 때는 고발을 할 수 있는, 배신의 행위가, 조직에 대해서는 배신의 행위가 정당할 수가 있죠. 배신의 행위가 정당한 것이죠. 그런 게 그게 조직에 대한 배신행위가 낙인이 찍혀서 어떤 사회적 가치가 구현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죠. 장자가 볼 때는 이런 가치는 목숨을 걸만한 중요한 가치가 아니고 오히려 그런 가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삶을 버린다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부분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더욱이 여기는 뭐 우리가 도저히 공감하기 힘든 백이숙제야 이야기가 됩니다만, 명분이 있으니까. 무광이 죽는 이유. 기타는 따라 죽는 이유. 찾아오지 않았는데도 죽었다는 말이에요. 신도적은 그 옆집의 옆집에 있다가 죽었으니까, 일단 뭐 수사로 이해를 해야 하겠지요. 실제로 그랬다기보다는 과장된 의미로 기억을 할 수 있는데 어찌 되었던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www.artnstudy.com

◆ 4교시 참된 사람의 요건

▲ 참된 사람 - 집착을 버릴 것

그 다음에 또 유명한 대목이 나오는데요. 2페이지 하단에 보지요. 샘이 말라 버리면, 물고기들이 땅위에 남아서, 서로 습기를 뿜어내며 서로 거품으로 적셔 주지만 강호(江湖)에서 서로를 잊고 사느니만 못하다. 또 요임금을 찬양하고, 요임금은 성군이니까, 걸왕(桀王), 걸왕은 폭군이니까 걸왕을 **비난하는 것은 둘 다 잊고 도와 일체가 되느니만 못하다.** 다 잊어버리는 것 보다 못하다. 불여상망어강호(不如相忘於江湖), 합철부어, 합철부어죠, 합철은 말라 버린다.
철은 수레바퀴가 지나간 자국, 그 자국에 비가 내려서 잠시 물이 찬 겁니다. 그러니까 해나면 금방 말라 버리죠. 거기에 붕어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것이지요. 서로 거품을 뿜어 내주고, 서로 물을 토해내주고, 서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게 결국엔 그게 아껴주고 하지만, 그 아껴 주는 게 강과 호수 같이 넓은 물에서 서로 잊고 지내는 것 보다 못하다.

일면으로는 맞는 이야기인데, 합철부어의 신세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당장 한 바가지의 물이라도 필요하겠지요. 왕발 같은 경우는 등왕각 서문에서요. 처합철유환이라고 했거든요. 등왕각 서문, 이것 하나로 천하에 이름을 날린, 등왕각은 당나라 태종의 동생이 이원형입니다. 당나라 태종의 형제 중에, 형제 다 죽었지요. 그런데 이원형은 살아남았어요. 저 남쪽 남창 땅에 가서 등왕각 유대나 짓고, 거기서 유유자적 하니까 태종이 보기에 정치적으로 위협할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살려 줍니다. 안 그러면 죽지요. 뭐 제왕의 상, 제왕의 자격을 왕위 계승권을 가진 사람은 왕이 되든가 죽든가 인데, 이렇게 유유자적하며 세상을 떠나서 사니까 살아남았습니다. 멀리 간 것이죠. 왕발이 이른 바, 아버지 따라서 천자, 임금 곁에 있다가 잘렸어요. 잘려가지고, 멀리 남쪽으로 떠나면서, 등왕각을 지나게 되지요. 거기서 이제 시회를 지었는데, 20세 때. 시를 지었는데 거기에 와있는 사람들이 등왕각 누대에 들어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당대의 명사들이었지만 다들 잘려가지고 낙향하거나, 멀리 쫓겨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두고 글을 지었는데, 글을 지은 것이 처합철이 유환이라, 장자와 통하는 맥락이 있지요. 장자는 강호에서 서로 잊고 지내는 것만 못하다고는 이야기 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신세가 합철부어의 신세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www.artnstudy.com

삶이라는 것은 아주 짧으니까요. 삶이라는 것을 전체를 두고 100년이라고 하면 긴 것 같지만, 그것에서 즐거운 시간 따지면 얼마 되지 않겠지요. 그리고 장자가 3백 20만년을 사는 대추나무라든지, 20만년을 명령이라는 거북이라든지, 이런 존재에 비하면 800년 살았다는 팽자도 한 순간 입니다. 이런 매미, 쓰르라미, 아침 한 나절 잠시 울고 말지만 이런 것이 사라지는, 인간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장자가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삶 속에서 결코, 놓치지 않는, 그런 맥락이 들어 와 있다고 보아야 하겠지요. 이제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3페이지로 넘어가서 또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기기묘묘한 지혜를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는데요. 산골짜기에 배를 간직하며, 배가 산골자기에 있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연못 속에 산을 간직하고서, 산이 연못 속에 있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단단히 간직했다고 말한다. 기상천외의 방법으로 숨긴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밤중에 힘이 센 자가 그것을 등에 지고 도망치면 잠자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작은 것과 큰 것을 간직하는 데는 각기 마땅한 곳이 있으나 그래도 훔쳐서 도주할 곳이 있지만, 천하를 천하에 간직하면 훔쳐서 도주할 곳이 없다.** 천하를 천하에 간직, 장천하의 천하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요, 훔쳐서 도망칠 곳이 없다. 이것이 일정불변(一定不變)하는 만물의 큰 진실인데 세속 사람들은 사람의 형체를 훔쳐서 세상에 나와서도 오히려 그것만을 유독 기뻐한다. 사람의 형체를 잠시 훔쳐서 나온 것인데 그것을 끝까지 누리려고 애를 쓴다.

사람의 형체와 같은 것은 천변만화(千變萬化)하여, 계속 변한다는 것이지요. 처음부터 일정함이 없으니 그 즐거움을 이루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그 때문에 성인은 장차 사물을 훔쳐서 도주할 수 없는 만물제동(萬物齊同)의 세계에 노닐어 모두 보존한다. 어떤 식으로 보존하는지에 대해서는 뒤에 사례가 나옵니다. 일찍 죽는 것도 좋은 것으로 여기고 오래 사는 것도 좋은 것으로 여기며, 삶도 좋은 것으로 여기고 죽음도 좋은 것으로 여겨 이 조차도 사람들이 본받는 바인데, 하물며 만물이 매여 있고 일체의 변화가 의지하는 도(道)이겠는가. 이것이 대중의 스승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도(道)는 정(情)과 신(信)은 있지만 작용이나 형체는 없는지라, 전해 줄 수는 있지만 받을 수는 없으며, 가전이불가수라는 말이지요, 터득할 수는 있지만 볼 수는 없으니, 보여줄 수 있다면 누구에게나 보여줄 수 있을 텐데, 터득할 수 있지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창공이라고 해서 수레바퀴 깎는 기술자가, 수레의 곡이 들어갈 수 있는 중심에 이 수레바퀴를 깎는 창능공이 수레의 중심에 있는 구멍, 이 곡이 끼워질 부분을 깎는데, 이게 자기가 몇 십년동안 깎아 왔다는 겁니다. 깎아 왔는데, 이것을 너무 많이 깎아 버리면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 그것을 딱 맞게 적당하게 깎아야 하는데, 그것을 자기 자식에게 전해줄때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전해지지 않더라. 스스로 터득할 수

www.artnstudy.com

밖에 없는 겁니다. 터득할 수는 있지만 볼 수는 없으니 스스로를 근본으로 삼는다. 그리고 이제 쭉 도의 모습을 형용하고 있는데요, 그건 넘어가서 다음부터 보겠습니다. 희위씨(豨韋氏)는 그것을 얻어서 천지를 동여매었으며, 복희(伏豨)는 그것을 얻어서 기(氣)의 근원을 취했으며 북두성(北斗星)은 그것을 얻어서 영원토록 어긋나지 않으며, 일월(日月)은 그것을 얻어서 영원토록 쉬지 않으며, 감배(堪坏)는 그것을 얻어서 곤륜산을 받아들였으며, 그 하나하나씩 보지요. 그 시위씨라고 하는 것은 은나라 때 태자 중에 한 명이구요. 복희씨는 주역의 8괘를 만들었다고 하는 인두사진, 사람의 머리에 뱀 몸뚱이를 하고 있는 신화속의 인물이구요. 북두성은 북극성 이야기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월은 뭐 해와 달이구요. 그리고 감배, 감배는 그 곤륜산의 산신령입니다.

그리고 풍이는 화백, 황하의 신이구요. 또 견오는 태산의 산신령입니다. 황제(黃帝)는 그것을 얻어서 운천(雲天)에 올랐으며, 황제는 삼황오제할 때 삼황중에 한명이궁. 전욱(顓頊)은 그것을 얻어서 현궁(玄宮)에 거처하였으며, 전웅은 삼황오제할 때 오제 중에 한 사람이구요. 우강(禺强)은 국방신으로 알려져 있어서 북극에 있는 겁니다. 우강은 그것을 얻어서 북극의 바다에 섰으며, 서왕모(西王母)는 그것을 얻어서 소광산(小廣山), 세계의 서쪽 끝에 있는 산에 앉아 그 시작을 알 수 없고 그 마침을 알 수 없게 했으며, 서왕모는 여신입니다. 여신인데, 산후에 같은데 나와요.

팽조는 그것을 얻어서 위로는 유우씨(有虞氏)에게 미치고 아래로는 오패(五覇)에 미쳤으며, 700살 살았다, 900살 살았다고 하죠. 부열(傅說)은 그것을 얻어서 무정(武丁)을 도와 천하를 모두 소유하였으며, 부열은 이제, 그 부암이라고 하는 들판에서 은나라 고종이 꿈에 상제로부터 훌륭한 신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서 최초의 타주가 되겠지요. 천하에 뿌렸어요. 그랬더니 부암이라는 곳에서 이 돌 지어 나르던, 열이라는 사람이 불려 왔는데, 꿈에 본 그 얼굴과 똑 같았다 해서 등용합니다. 동유성(東維星)을 타고 기성(箕星)과 미성(尾星)을 몰아 열성(列星)과 나란하게 되었다. 동륭성, 기성, 미성, 모두 28수 중의 하나로 별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도를 터득한, 도를 터득해가지고 결국 시위씨, 복희씨, 일월이니, 이런 영원한 시간을 얻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구요.

▲ 위대한 변화 - 삶과 죽음

그리고 4페이지 하단에 가면 세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한번 보지요. 위대한 변화. 변화를 이야기한 것인데요. 자사(子祀), 자여(子與), 자리(子犁), 자래(子來) 네 사람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렇게 말했다. 누가 무(無)를 머리로 삼고 생(生)을 등뼈로 삼고 사(死)를 꽁무니로 삼을 수 있는가? 원래 삶이 없었으니까 무죠. 그리고 생이 있다가 사, 다시 무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삶과 죽음을 받아 드릴 수 있는가, 누가 생(生)과 사(死), 존(存)과 망(亡)이 한 몸임을 아는가? **생과 사가 한 몸이다. 존과 망도 한 몸이라는 것이지요. 동시에 생겨난 것이라는 것이죠.**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

www.artnstudy.com

는 그와 사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사람이 서로 쳐다보면서 빙그레 웃고 마음에 거슬리는 것이 없자 막역한, 막역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마침내 서로 더불어 벗이 되었다. 자기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얼마 있다가 자여(子輿)가 병에 걸리자, 자사(子祀)가 가서 병의 차도를 물으면서 말했다. "기이하구나! 조물자가 그대를 이처럼 구부러지게 하였구나." 곱사등이 된 것이죠. 구부러진 곱사등이 등에 생겨 오장이 위에 붙어 버리고, 턱은 배꼽 아래에 숨고, 어깨는 이마보다도 높고, 상투는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데, 음양의 기가 조화를 잃어버렸는데도 그 마음은 한가로워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았다. 자여가 비틀비틀 걸어가 우물에 자기 모습을 비춰보고는 말했다. "아아! 저 조물자여, 거듭 나를 이처럼 구부러지게 하는구나." 탄식한 것이지요. 그러자, 자사가 말했다 하고 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사가 말했다. "그대는 그것이 싫은가?" 자여가 말했다. "아니다. 내가 무엇을 싫어하겠는가. 가령 나의 왼쪽 팔뚝을, 이게 앞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서서히 변화시켜서 닭이 되게 한다면, 나는 그것을 따라 새벽을 알리는 울음을 내게 할 것이고, 닭이 되면 닭에 맞추어 살 것이고, 가령 나의 오른쪽 팔뚝을 서서히 변화시켜서 탄환이 되게 한다면, 새총의 탄환이 되게 한다면, 나는 그것을 따라 새구이를 구할 것이며, 탄환이 되어 탄환의 역할을 할 것이다. 가령 나의 궁둥이를 변화시켜서 수레바퀴가 되게 하고, 궁둥이가 두개잖아요. 둥글둥글 하잖아요. 그래서 수레바퀴랑 비유한 것이지요. 나의 정신을 말이 되게 한다면, 나는 그것을 따라 수레를 탈 것이니 어찌 따로 수레에 멍에하겠는가. 거 참 좋다는 것이지요. **수레에 따로 탈 필요 없이, 게다가 생명을 얻는 것도 때를 따르는 것이며, 생명을 잃는 것도 때를 따르는 것이니, 태어나는 때를 편안히 맞이하고 죽는 때를 편안히 따르면 슬픔이나 즐거움 따위의 감정이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이 옛날의 이른바 '거꾸로 매달렸다가 풀려났다'는 것이다. 거꾸로 매달렸다 풀려났다. 형해라고 하지요. 거꾸로 매달렸다가 풀려난 존재, 매달렸다가, 해, 풀려났다. 거꾸로 매달린 존재들이 예를 들면, 꽃의 꼭지들이 꽃이 거꾸로 매달렸다가 떨어지고, 열매가 또 거꾸로 매달려 있다 떨어지고, 때론 이파리도 거꾸로 매달려 있다가 떨어지죠.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초목이나, 초목의 꽃이나 잎사귀나 열매 따위가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있다가 떨어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다. 초목의 영락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다. 영락이라고 그러지요. 떨어질 영자 떨어질 락자, 영락, 영은 풀이 지는 것이 영이고, 풀꽃이 지는 것이 영, 락은 낙엽이 떨어지는 것이 락이지요. 뭐 별다른 설명이 또 필요없지요. 거꾸로 매달려 있다가 풀어난 것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스스로 풀려나지 못하는 것은, 사물이 그것을 묶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초목은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떨어지는데, 사람은 사물이 그것을 묶어 두었다. 먼 사물이냐, 그러니까 뭐, 온갖 이야기를 다하지요.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저는 그 말을 못 믿겠습니다. 장군이 죽는데, 그러면 적군한테 죽었다 하고 알리겠어요? 설마, 그런데 그걸 굳이 알리지 말라. 뭐 이게 좀 이상한 이야기

www.artnstudy.com

같아요. 너무 제가 일방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일종의 영웅화 인데, 이런 또 영웅화라고 하는데 과도하게 되면 이순신이 죽지 않았다, 이순신이 죽지 않았으니 아직 살아 있다는 것이 되고, 죽었다는 근거나 확실한 것이 없으면 죽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내지 못하면 산 것으로 간주한다든지. 일단은 논리학에서는 무지의 오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된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는 오류 묶어 놓고 있기 때문에, 죽지 못하는 것이지요.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던, 그 죽음도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되겠지요. 또 사물이 천(天), 자연(自然)을 이기지 못한 지 오래되었는데, 이것은 자연이지요. 천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또 무엇을 싫어하겠는가. 자연의 변화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나는 싫어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자여가 이제 죽는 그런 상황이구요.

그 다음에 자래가 죽는 것입니다. 5페이지 하단에요. 중간에 보면, 또 얼마 있다가 자래(子來)가 병에 걸려 헐떡거리면서 막 죽게 되자 그 아내와 자식들이 빙 둘러싸고 울고 있었는데, 자리(子犁)가 가서 위문하고 이렇게 말했다. “쉿! 저리들 비키시오! 이 엄숙한 변화의 작용을 방해하지 마시오.” 자리가 문에 기대어 자래에게 말했다. “기이하구나 조화여. 또 그대를 무엇으로 만들려 하며, 그대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는가. 그대를 쥐의 간으로 만들 것인가. 그대를 벌레의 다리로 만들 것인가.” 자래가 말했다. “부모란 자식에게 동서남북 어디로 가게 하든 오직 명령을 따라야 하는 존재이다. 음양(陰陽), 이 음양은 자연입니다. 음양은 사람에게 단지 부모와 같을 뿐만이 아니다. 저 음양이, 자연이 나를 죽음에 가까이 가게 하는데, 만약 내가 따르지 않는다면 나만 버릇없는 자가 될 뿐이니 저 음양에 무슨 죄가 있겠는가.” 그리고 장자에 몇 번, 한 세 번정도 나오는 구절이 나옵니다. 5페이지 하단입니다. 대자연은 육체(肉體)를 주어 나를 이 세상에 살게 하며, 삶을 주어 나를 수고롭게 하며, 늙음으로 나를 편안하게 해주며, 죽음으로 나를 쉬게 한다. 죽음이 쉬는 것이다. 그 때문에 나의 삶을 좋은 것으로 여기는 것은 바로 나의 죽음을 좋은 것으로 여기기 위한 것이다. 삶을 좋아했다면 죽음 또한 좋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삶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 근거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같은 논리지요. 그리고 지금 대장장이가 쇠붙이를 녹여서 주물을 만드는데, 쇠붙이가 뛰어 올라와 ‘나는 장차 반드시 막야와 같은 명검(名劍)이 되겠다.’고 말한다면, 대장장이는 반드시 상서롭지 못한 쇠붙이라고 여길 것이다. 그 쇠붙이 아주 웃긴다 이렇게 생각하겠다는 말이지요. 이제 한 번 인간의 형체를 훔쳐서 세상에 태어나 “나는 언제까지나 오직 사람으로만 살겠다.”고 말한다면, 저 조화자(造化者)도 반드시 상서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니, 지금 한 번 천지를 커다란 용광로로 삼고, 조화를 대장장이로 삼았으니 어디로 가서 무엇이 된들 좋지 않겠는가? 편안히 잠들었다가 화들짝 깨어날 것이다. 편안히 잠드는 것은 죽음이고 화들짝 깨어나는 것은 또 다른 존재로 변화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변화, 조화의 다양한 모습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방내의 사람과 방외의 사람,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게 사실 양이 많아서 다 하기가 힘드네요. 그런데 그 다음에

www.artnstudy.com

나오는 방내의 사람과 방외의 사람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시간에 보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시간 주제는 일단, 은지왕편, 혼돈 설화가 나오는 부분인데, 다음 시간의 전체 주제는 은지왕편의 혼돈설화가 되겠지만, 다음 시간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대종사편의 네 번째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다섯 번째는 넘어가고, 일곱 번째 이야기, 그러니까, 네 번째 이야기와 일곱 번째 이야기, 좌망, 이 두 주제를 다음시간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음시간에 하는 것이, 은지왕편이 양이 적기 때문에, 대종사편이 양이 많으니까 두 주제를 소화하는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오늘은 이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서 방내의 사람과 방외의 사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www.artnstudy.com